

INTERNATIONAL PIANO

KOREA

Yevgeny Sudbin

러시아 피아노계의
'Great Expectation'

COLLECTOR'S
GUIDE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Op.43)

REPERTOIRE

브람스
(7개의 환상곡, Op.116)

Vol.86 April 2010

LISTEN & LESSON

김나영

MASTERCLASS

슈만 (환상곡, Op.17)

SPECIAL ISSUE

현대 레퍼토리를 찾아서...

룩버그/슈톡하우젠/테오도라키스/쿠르탁의 작품들

2010 SUMMER FESTIVAL

전 세계에서 열리는 80여 개의 음악 축제들



Portrait of Kim Na-yeong

김재진

BORIS BEREZOVSKY

리스트의 명인기와 쇼팽의 섬세함으로

www.mnetmedia.co.kr



ISSN 1599-7850

뉴욕에서 펼쳐지는 피아노 협주곡의 향연

협주곡의 밤 시즌 III



음악 감독 클라라민

NYCA가 주최하는 협주곡의 밤의 세 번째 시즌이 4월부터 5월말까지 뉴욕 중심지의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의 공연과 새로 추가된 마스터클래스로 업그레이드된 행사를 기약하고 있다

뉴욕 협주곡 아티스트(New York Concert Artists & Associates, 이하 NYCA)에서 주최해온 콘서트 시리즈인 협주곡의 밤(Evenings of Piano Concerti,

EPC)이 3회 째를 맞이해, 뉴욕 중심지의 공연장과 홀에서 피아노 협연과 마스터클래스가 어우러지는 행사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EPC는 피아노 협주곡만으로 음악회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다른 공연 시리즈와 차별점을 형성한다. 음악 감독을 맡아온 제미 피아니스트 클라라민(Klara Min, 웨슬리안 대 교수)은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 콘서트 시리즈의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협주곡의 밤은 피아니스트가 중심이 되어 개최되는 콘서트 시리즈입니다. 오페스트라와의 협연은 피아니스트로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연주장르라고 생각이 되어, 이 시리즈를 하게 되었죠. EPC는 뉴욕의 젊은 피아니스트들에게 오페스트라와의 협연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회까지는 작곡가별 또는 테마별로 진행했으나 올해 행사는 NYCA 소속 피아니스트들이 펼치는 무대인 NYCA Pianists', NYCA주최 콩쿠르를 포함한 우승자들의 무대인 Winners', 차세대 유망주들이 무대를 꾸미는 Rising Artists'의 세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공연을 펼친다.

개막 일인 4월 24일에 펼쳐지는 NYCA Pianists'의 무대에는 클라라민을 비롯해, 2002년 국제 무대에 데뷔해 공연과 음반을 남기며 왕성히 활약 중인 다니엘 리날도(Daniele Rinaldo, 이탈리아), 하노버 음대에서 아리 바르디를 사사 중인 에프게니 체레판오프(Evgeny Cherepanov, 러시아), 마리아 카날스 콩쿠르를 비롯한 다수의 콩쿠르를 석권하고 맨해튼 음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알렉산드르 무토즈킨(Alexandre Moutouzkine, 러시아/미국)이 기념 해를 맞이한 쇼팽과 슈만의 협주곡들을 중심으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5월 8·15일에 열릴 Winners' 콘서트에서는 NYCA가 주최한 올해의 인터내셔널 피아노 협주곡 컴피티션의 우승자인 아나스타샤 데디크(Anastasia Dedik, 러시아)를 중심으로, 각 국제 콩쿠르 우승자였던 손민수(호겐스, 힐튼 헤드 콩쿠르 등 1위), 스펜서 마이어(Spencer Myer, 뉴 욕리언스 콩쿠르 외 1위), 레이몬드 왕(Raymond Wong, 시애틀 콩쿠르 1위) 등이 무대에 선다.

5월 1·5·22일에 걸쳐 공연이 개최되는 Rising Artists'의 무대에서는 드미트리 레브코비치(Dmitri Levkovich, 힐튼 헤드와 호세 이트루비 콩쿠르 1등), 마테 베르가(Matei Varga, 마리아 카날스 콩쿠르 외 1등), 조희연(피마디 음대 석

사), 막심 안티쿠신(Maxim Anikushin, 맨해튼 음대 박사), 황고능(Ko-Nung Huang, 쿿거스 대학 박사) 등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음대 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경력의 차세대 대가들을 만날 수 있다.

올해 행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처음으로 추가된 마스터클래스이다. 5월 10일에 이탈리아 코모 아카데미의 교수인 윌리엄-그랜트 나보레(William-Grant Nabore)에 이어, 26일에는 바르샤와 쇼팽 아카데미 교수이자 쇼팽 국제 콩쿠르의 디렉터인 피오트르 팔레치니(Piotr Paleczny) 등 지명한 교육자의 지도를 접할 수 있다. 특히 쇼팽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참석하게 되는 팔레치니는 마스터클래스와 함께 뉴욕 스트링 사중주단과 27일에 2곡의 쇼팽 협주곡 공연을 펼칠 예정이어서 한층 기대를 모은다.

올해 행사의 상연 반주를 맡게된 악단은 맨해튼 체임버 오페스트라이며, 지휘자로는 쿠르트 마주어의 아들이자 샌안토니오 심포니의 지휘자인 켄-데이비드 마주어(Ken-David Masur)를 비롯해, 그린위치 심포니의 지휘자 데이비드 길버트(David Gilbert), 페어뱅크 심포니 지휘자인 에두아르트 질베르칸트(Eduard Zilberkant) 등이 무대에 올라 명민한 지휘로 통성한 관현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진일보태고 있는 EPC와 NYCA

EPC를 주최해온 비영리 단체인 NYCA는 클라라민을 비롯해 제프리 스완(Jeffrey Swann), 에두아르트 질베르칸트를 주축으로 2008년 여름에 설립되었으며, 명예 위원이던 제임스 토코(James Tocco)까지 합류해 현재 4명이 이끌어 가고 있다.

소속 음악가로는 클라라민(예술 감독), 에프게니 체레판오프, 알렉산드르 무토즈킨, 다니엘 리날도, 제프리 스완, 제임스 토코, 조재희, 크리스토프 다를라라(Christoph

NYCA Pianists



다현 리필도



클라라 민



이르겐니 파크



알렉산드로 우초진

Winners



요니 레프 아토프



순인수



스펜서 미이어

Rising Artists



프랭클린 김



마테 페로티

Conductors



마이클 바우어



데이비드 잘라프



에두아르 쿠타노프

Masterclass



피오르프 팔레츨니



필리핑-그린틴 차노리

Declar), 마키코 히라타(Makiko Hirata), 쿠엔틴 김(Quentin Kim), 요니 레프 아토프(Yoni Levyatov) 등의 피아니스트와 지휘자 에두아르트 잘베르칸트가 활약 중이다.

클라라 민은 NYCA는 젊은 피아니스트들의 모임으로 자체 내에서 협주곡의 밤과 같은 행사를 기획하지만 매니지먼트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했다.

"모든 행사를 포함한 결정에 NYCA 피아니스트들이 변갑아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 단체와 개인을 통해서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죠. 이번 행사는 아마도 아티스트 서비스를 비롯해, 플린드 영사관과 협회, 이탈리아 영사관과 협회, 삼성 미국지사, 스타인웨이 피아노, 한국 문화원 등 많은 단체들이 협찬했는데, 오케스트라를 초빙한다는 건 정말 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기업의 후원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한국기업의 후원을 많이 기대해봅니다."

NYCA의 창단 멤버이자 EPC의 음악 감독으로 활약해온 그녀는 이들의 소명과 비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티스트는 자신의 예술에 삶을 반영할 줄 알고, 서민들과 같이 슬퍼고, 시대의 흐름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술가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예술적 장점과 색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하죠. 하지만, 세상과의 교류 없이 자기 세계에만 빠져있다면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진정한 예술인이라고 할 수 없죠. NYCA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은 NYCA의 행사에 참여하는 피아니스트들이 NYCA가 제공하는 기회들을 한번에 그치는 음악회가 아닌 더 큰 미래를 위한 발전의 도구로 사용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NYCA는 그런 것들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음악을 PR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주제적인 음악가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은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그녀의 활동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현대음악의 연주는 현 연주자들의 의무'라는 기치 아래 현대 음악을 자주 연주하고 있는 그녀는, 최근 한국 작곡가들이 윤이상, 진은숙을 비롯해 한영희, 강석희, 최우정, 김경길 등의 피아노 작품을 담은 음반을 녹음했다(이 음반은 낙소스 레이블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연습시간을 지키면서 NYCA 시리즈를 병행하기가 만만치 않지만, 하지만 앞으로 좋은 분들과 만남으로 NYCA가 더 성장하게 되어 음악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사회에 유익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히는 그녀의 의지가 있기에 NYCA는 진실한 행사들을 펼쳐며 날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뉴욕 타임즈와 뉴욕의 클래식 라디오 스테이션(WQXR, WNYC) 등에도 소개되는 등 한층 더 많은 저널리스트와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있는 EPC의 세 번째 시즌이, 젊은 인재들에게 연주 기회를 제공하고 풍성한 들을 거리와 유익한 가르침으로 충만 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글 | 윤석진**

피아노 협주곡의 밤

4월 24일~5월 27일-뉴욕

※ www.newyorkconcertartists.com을 방문하면 EPC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